

낯선 사람의 범죄유인 행동에 대한 유아의 인식

Examining Early Childhood's Perception of Strange Adults' Luring Behaviors Facilitating Crime

한국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김 영 심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Cyber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Young Shim K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Referenc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sponse pattern of children of early childhood (ages 4 to 5) to strangers' luring behaviors that suggest imminent crime. Data were collected from registrants offered by four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dividual interviews were performed ($N = 100$) by using a questionnair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 of early childhood responded unfavorably to strange adults' kindness and request for aid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y did not make the right decision in relation to strange adults' luring behaviors that lead to crime when family related clues were manipulated. Second, children of early childhood responded favorably to strange adults' luring behaviors that are suggestive of criminal intent when candy, ice cream, and toys were offered. Especially, youngsters were more prone to be deceived by these indices than the older children. Third, older children responded unfavorably to strange adults' luring behaviors that suggest a criminal intent. In addition, youngsters did not respond cleverly to strange adults' luring behaviors that suggest a criminal intent while showing a reluctant response.

주제어(Key Words) : 유아범죄(Crime for early childhood), 범죄예방교육(preventive education for crime), 범죄인식(crime perception)

I. 서론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 중에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는 먼저 보호되어야 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되고 있고 그 흉악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Chung, 2008). 유아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유형은 다양한데 성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착취, 유기, 살인 그리고 유괴 등이다(Chung, 2000). 그 중 유괴는 성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착취, 유기,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2005년에 11,763명에서 2006년 17,470명으로 49%증가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19,959명으로 14%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18,581명으로 7%감소하다가 2009년에 다시 20,463명으로 10%증가 하였다(Statistics Korea, 2010). 또한 아동성폭력 신고건수도 2000년 595건에서 2009년 1,017건으로 1.7배 증가하였고, 10년 사이(1999~2008년) 6세 이하 여자 아동의 성폭력 피해는 1999년 50명에서 2008년 142명으로 2.8배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0). 검찰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19건을 따로 분석한 결과 성인에 대한 성폭력과 달리 주간 발생률이 47.3%(9건)로 높고 성폭력 가해자 연령도 10~70대까지 다양해졌다(Kuminilbo, 2011, February 13).

정부는 그동안 범 정부차원의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과 「아동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김수철 사건 등 아동대상 성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더구나 유아대상 성범죄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어 사건화된 것 보다는 보고되지 않는 범죄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Geffner, 1992;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09; Wyatt & Newcomb, 1990).

이렇게 아동대상 사고와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아동이 살기에 위험한 사회로 변모되었다는 점이다. 교통량 증가, 복잡한 도시, 유해시설의 증가 등은 어린이들이 생활하기에 많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Doh, Lee, & Seung, 2009; Yeun, 2008).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로 인하여 자녀양육이 가정에서 유아교육기관으로 옮겨지므로 인해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유아들의 하루 생활은 대부분이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학원 등 가정 외적 환경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Yeun, 2008). 더구나 어린이의 발달적 특징이 어린이 범죄와 사고에 이용된다는 점은 유아기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이다. 유아

기는 발달특성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하지만 반면에 신체기능의 발달이 미숙하여 신체 균형 유지 능력이나 운동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과 자기 조절 및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이 부족한 시기이므로 범죄 상황에 취약하다(Choi, 2002; Hyun, 2005; Kwak, 2000). 우리의 사회가 정신적 위기의 시대가 되었다는 점도 유아대상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즉, 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는 불안, 우울, 고립감, 비현실감 등을 일으켜 정신병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정신병적 범죄의 대상은 전 연령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나고 있어 유아들도 그들의 범죄 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소아기호중 환자 즉, 12세 이전의 어린이에게 과도하게 성적 환상을 가진 사람의 증가는 어린 유아들에게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Lee & Lee, 2009).

Briggs(1995)는 모든 유아는 나이, 성별, 인종, 민족, 사회계층, 종교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성범죄에 취약한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유아는 힘이 없다. 둘째, 정보가 없는 유아는 모든 성인을 믿는다. 셋째, 유아는 성인의 동기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넷째, 유아는 성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운다. 다섯째, 유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호기심이 많으나 성에 관한 지식은 부족하다. 여섯째, 성적 안전에 대해 배우지 않은 아이들은 성폭력적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일곱째, 성폭력이 흔히 애정의 표현이나 증거로 가장되기도 한다. 여덟째, 유아들은 자신의 고민이나 두려움을 표현할 수 있게 격려되거나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이상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야 하고 피해야 함을 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상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만약 본다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상한 사람은 항상 남자라고 알고 있다. 더구나 수상한 사람은 외모가 험악하고 옷차림이 남루하며 매서운 눈으로 아이들을 노려볼 것이라고 생각하며, 친절하게 굴거나 친절, 해 보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Briggs, 1995). 이러한 유아의 사고 특성은 Lee(2002)의 연구에서도 ‘호의’, ‘도움요청’을 이용한 유인행동에 대해 아동의 이해능력이 ‘명성’, 위급상황’을 이용한 유인행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위험이 특정 상황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경험한 상황을 통해 이해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결국 어른의 시각에서 위험한 것이 아동에게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어른의 시각에서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동에게는 너무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Lee & Lee, 1999).

우리나라 아동 유괴의 경우 범죄자를 전혀 모르는 관계에

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Choi & Choi, 1996)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사이가 많았다(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199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0; Kuminiibo, 2011; Snyder, 2005). 아동유괴 범죄자들은 대부분 아동과 친근감을 형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함으로써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함께 가도록 유인한다. 이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유인방법은 아동이 타인의 칭찬을 추구하고, 권위나 규칙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며, 숨겨진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이용하여 호의, 도움요청, 권위, 뇌물, 위급상황 등을 이용하여 아동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거나 말로써 유혹하거나, 부모의 심부름을 가장하고, 길을 물어보는 척하는 방법으로 아동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았다(Choi, 2003; Choi & Choi, 1996; Colak, 2004; Kuminiibo, 2011; Lee, 2002). 아동유괴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몸값을 요구하거나 아동에게 구걸이나 절도를 시키기 위한 것, 모성욕구에 의한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동을 협박에 이용하거나 부모에 대한 원한을 갚고자 하는 것,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 등이나 피해자인 아동과 상관없이 가해자의 욕구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남성 가해자의 경우 아동유괴의 60% 이상이 성적 욕구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Boudreaux & Lord, 2000; Choi & Choi, 1996; Gill, 2009). 특히, 유괴대상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괴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괴는 6세 이하의 아동에게서 나타나고, 성적 욕구충족을 위한 유괴는 여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Choi & Choi, 1996).

어린 나이에 겪은 유괴는 성학대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아동에게 정신적, 육체적, 성적 상해를 남기고, 이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며 대인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Cho, 2008; Choi, 2003; Friesen, Woodward, Horwood, & Fergusson, 2009; Kim, 2009; Ryu, 2009). 더 나아가 피해아동의 가족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Cho, 2008).

최근 유아 범죄교육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해 연간계획안을 갖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이며 성교육이나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은 어린이집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유치원은 분기별 한 번씩 교사가 직접 실시하고 있고, 교육내용도 이야기나누기, 상황극, 그림자료, 음률 등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유아범죄 예방에 대처하는 방법이 매우 형식적이고 소극적이며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Cho, 2008).

따라서 자기중심적 사고의 인지양식을 갖고 있는 유아들

이 범죄유인 행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 상황에 대한 유아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바로 알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유아들이 왜 범죄에 희생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낯선 사람의 범죄 유인 행동에 어떻게 반응 하는지를 보는 연구도 유아들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아들이 범죄 유인행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유아들이 범죄에 유인되지 않도록 범죄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유인 행동에 대해 유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범죄유인 행동에 대해 유아들이 연령별, 성별 간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하는 유치원 2곳과 어린이집 2곳을 임의 표집하여 그 곳에 다니는 만 4, 5세 유아 10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무성의한 응답과 누락된 항목이 포함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100명의 유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적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4 Years Old	5 Years Old	Total
Female	18	34	52
Male	26	22	48
Total	44	56	100

2. 자료수집

낯선 사람의 범죄 유인 행동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Choi와 Choi(1996)의 연구와 Lee(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유괴범죄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인방법을 기초로 연구자가 유아에게 적합한 범죄유인 질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유아범죄를 일으키는 가상 상황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을 묻는 것으로 2회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만 3세 유아들 중 연구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와 반응을 하지 않는 유아들이 있어서 만 3세 유아들은 배제하고 만 4,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2.
Content of the Questionnaire

	Alluring methods	Questions
1	Kindness	What are you going to do if a strange person asks you to bring you home while you are alone?
2	Hospitality	What are you going to do if a strange person suggests you to buy ice cream, candy, and toys?
3	Emergency Situation	What are you going to do if a strange person tells you to go to a hospital to see your mom who just got injured?
4	Physical Harrassment	What are you going to do if a strange person tries to touch your body?
5	Affection Praising	What are you going to do if a strange person asks you to show your body by saying that "you are so cute"?
6	Assistance	What are you going to do if a strange person asks you to help and go somewhere?
7	Consideration	What are you going to do if a strange person suggests you to bring you home while you got lost in a playground.
8	Faking	What are you going to do if a strange person asks you to open door while you stay home by yourself.
9	Emergency Situation	What are you going to do if a strange person tries to bring you home by saying that "you mom is sick and I will give you a ride"?

그리고 질문을 할 때 낯선 사람이라는 용어보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유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는 용어로 수정하였다. 최종 9문항의 질문지를 완성하여 3인의 유아교육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질문은 본 연구자가 직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몇 차례 방문하여 유아들과 얼굴은 익힌 후 비어있는 교실에서 유아와 면대면으로 실시하였다. 소요시간은 10~20분 정도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은 Table 2와 같다.

3. 자료분석

유아용 질문지 문항이 개방식 서술형이었으나 범주유인 질문에 수용적 반응, 거부적 반응, 기타(모르겠다, 그냥 있다) 등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이검증(χ^2)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낯선 자동차가 다가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할 때 유아의 인식
“혼자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는 자동차가 다가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할 때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90%의 유아가 모르는 자동차를 타지 않을 것이라도 대답하였다. 연령이 어린 유아가 연령이 높은 유아보다 그리고 남아가 여아보다 더 모르는 자동차를 탈거라고 대답하였으나 연령별 성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성별에 따른 결과는 Table 3, Table 4와 같다.
2.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난감으로 유혹할 때 유아의 인식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탕, 로봇 등 장난감을 사준다고 따라오라고 하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Table 3.
Age differences in identifying a strange car enticing for riding home (N = 100)

Age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Frequency (%)
4 years old	6(13.6%)	38(86.4%)	0(0.0%)	44(100%)	χ^2 2.778
5 years old	3(5.4%)	52(92.9%)	1(1.8%)	56(100%)	
Total	9(9.0%)	90(90.0%)	1(1.8%)	100(100%)	$df = 2$

Table 4.
Gender differences in identifying a strange car enticing for riding home (N = 100)

Gender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Frequency (%)
Male	5(10.4%)	43(89.6%)	0(0.0%)	48(100%)	χ^2 1.131
Female	4(7.7%)	47(90.4%)	1(1.9%)	52(100%)	
Total	9(9.0%)	90(90.0%)	1(1.8%)	100(100%)	$df = 2$

Table 5.
Age differences in recognition while enticing with favorite food or toys (N = 100)

Age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Frequency (%)
					χ^2
4 years old	9(20.5%)	35(79.5%)	0(0.0%)	44(100%)	7.174*
5 years old	2(3.6%)	54(96.4%)	0(0.0%)	56(100%)	
Total	11(11.0%)	89(89.0%)	0(0.0%)	100(100%)	df = 2

*p < .05

Table 6.
Gender differences in recognition while enticing with favorite food or toys (N = 100)

Gender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Frequency (%)
					χ^2
Male	6(12.5%)	42(87.5%)	0(0.0%)	48(100%)	.212
Female	5(9.6%)	47(90.4%)	0(0.0%)	52(100%)	
Total	11(11.0%)	89(89.0%)	0(0.0%)	100(100%)	df = 2

질문에 89%의 유아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 = 7.174(df = 2)$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따라서 연령이 어린 유아는 연령이 높은 유아보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난감으로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3. 엄마를 핑계로 유혹할 때 유아의 인식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엄마가 다쳐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72%의 유아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 27%의 유아는 따

라 간다고 대답하였다. 연령이 어린 유아는 연령이 높은 유아보다 그리고 남아가 여아보다 엄마를 핑계로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별 성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성별에 따른 결과는 Table 7, Table 8과 같다.

4. 낯선 사람이 내 몸을 만지려고 할 때 유아의 인식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내 몸을 만지려고 한다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질문에 81%의 유아는 ‘안된다’, ‘싫어요’, ‘하지마세요’ 라고 말할 거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17%의 유아는 ‘가만히 있을 거다’ 라고 대답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 12.029(df = 2)$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Table 7.
Age differences in recognition while enticing in referring to mother (N = 100)

Age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Frequency (%)
					χ^2
4 years old	15(34.1%)	28(63.4%)	1(2.7%)	44(100%)	3.499
5 years old	12(21.4%)	44(78.6%)	0(0.0%)	56(100%)	
Total	27(27.0%)	72(72.0%)	1(1.0%)	100(100%)	df = 2

Table 8.
Gender differences in recognition while enticing in referring to mother (N = 100)

Gender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Frequency (%)
					χ^2
Male	16(33.3%)	31(64.6%)	1(2.1%)	48(100%)	3.160
Female	11(21.2%)	41(78.8%)	0(0.0%)	52(100%)	
Total	27(27.0%)	72(72.0%)	1(1.0%)	100(100%)	df = 2

Table 9.
Age differences in recognition when a strange person is trying to touch one's body (N = 100)

Age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Frequency (%)
					χ^2
4 years old	2(4.5%)	29(65.9%)	13(29.5%)	44(100%)	12.029*
5 years old	0(0%)	52(92.9%)	4(7.1%)	56(100%)	
Total	2(2.0%)	81(81.0%)	17(17.0%)	100(100%)	df = 2

Table 10.
Gender differences in recognition when a strange person is trying to touch one's body (N = 100)

Gender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Frequency (%)
					χ^2
Male	0(0.0%)	35(72.9%)	13(27.1%)	48(100%)	8.112*
Female	2(3.8%)	46(88.5%)	4(7.7%)	52(100%)	
Total	2(2.0%)	81(81.0%)	17(17.0%)	100(100%)	df = 2

). 따라서 연령이 높은 유아들은 어린유아들보다 모르는 사람이 내 몸을 만지려고 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 8.112(df = 2)$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따라서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모르는 사람이 내 몸을 만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많이 하였다. 연령별, 성별에 따른 결과는 Table 9, Table 10과 같다.

5. 낯선 사람이 내 몸을 보여 달라고 할 때 유아의 인식

“어떤 사람이 “00야 너무 예쁘다(00는 멋있게 생겼는데)”고 하면서 우리 친구의 몸을 보여 달라고 하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95%의 유아가 ‘안돼요’ 라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한다고 대답하였다. 연령이 어린 유아가 연령이 높은 유아보다 그리고 여아가 남아보다 낯선사람이 내 몸을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준다고 대답하였으나 연령별 성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성별에 따른 결과는 Table 11, Table 12와 같다.

Table 11.
Age differences in recognition when a strange person asks to show one's body (N = 100)

Age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Frequency (%)
					χ^2
4 years old	4(9.1%)	40(90.9%)	0(0.0%)	44(100%)	2.768
5 years old	1(1.8%)	55(98.2%)	0(0.0%)	56(100%)	
Total	5(5.0%)	96(95.0%)	0(0.0%)	100(100%)	df = 2

Table 12.
Gender differences in recognition when a strange person asks to show one's body (N = 100)

Gender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Frequency (%)
					χ^2
Male	2(4.2%)	46(95.8%)	0((0.0%)	48(100%)	.135
Female	3(5.8%)	49(94.2%)	0((0.0%)	52(100%)	
Total	5(5.0%)	96(95.0%)	0(0.0%)	100(100%)	df = 2

6. 낯선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유아의 인식

“모르는 사람이 도와달라면서(어디를 알려 달라면서) 함께 가자고 한다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75%의 유아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대답하였고, 22%의 유아는 도와주겠다고 대답하였다. 연령이 어린 유아가 연령이 높은 유아보다 그리고 남아가 여아보다 모르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준다고 대답하였으나 연령별 성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성별에 따른 결과는 Table 13, Table 14와 같다.

7. 놀이동산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모르는 사람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할 때 유아의 인식

“놀이동산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83%의 유아는 안 따라가고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고 대답하였고, 17%의 유아는 따라간다고 대답하였다. 연령이 어린 유아가 연령이 높은 유아보다 그리고 남아가 여아보다 놀이동산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낯선 사람이

Table 13.
Age differences in recognition when a strange person asks to help (N = 100)

Age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Frequency (%)
					χ^2
4 years old	10(22.7%)	32(72.7%)	2(4.5%)	44(100%)	.699
5 years old	12(21.4%)	43(76.8%)	1(1.8%)	56(100%)	
Total	22(22.0%)	75(75.0%)	3(3.0%)	100(100%)	df = 2

Table 14.
Gender differences in recognition when a strange person asks to help (N = 100)

Gender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Frequency (%)
					χ^2
Male	12(25.0%)	33(68.8%)	3(6.3%)	48(100%)	4.108
Female	10(19.2%)	42(80.8%)	0(0.0%)	52(100%)	
Total	22(22.0%)	75(75.0%)	3(3.0%)	100(100%)	df = 2

Table 15.
Age differences in recognition when a strange person suggests to take home in a play ground (N = 100)

Age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Frequency (%)
					χ^2
4 years old	11(25.0%)	32(72.7%)	1(2.3%)	44(100%)	5.055
5 years old	6(10.7%)	50(89.3%)	0(0.0%)	56(100%)	
Total	17(17.0%)	82(82.0%)	1(1.0%)	100(100%)	df = 2

Table 16.
Gender differences in recognition when a strange person suggests to take home in a play ground (N = 100)

Gender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Frequency (%)
					χ^2
Male	10(20.8%)	37(77.1%)	1(2.1%)	48(100%)	2.153
Female	7(13.5%)	45(86.5%)	0(0.0%)	52(100%)	
Total	17(17.0%)	82(82.0%)	1(1.0%)	100(100%)	df = 2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 그 낯선 사람을 따라간다고 대답 하였으나 연령별 성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성별에 따른 결과는 Table 15, Table 16 과 같다.

8. 혼자 집에 있을 때 친척이라고 문 열어 달라고 할 때 유아의 인식

“혼자 집에 있는데 친척이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84%의 유아는 문을 안 열어줄 거라고 대답하였고, 15%의 유아는 친척이나 아는

Table 17.
Age differences in recognition when a strange person (pretending a relative) asks to open door (N = 100)

Age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Frequency (%)
					χ^2
4 years old	6(13.6%)	37(84.1%)	1(2.3%)	44(100%)	1.370
5 years old	9(16.1%)	47(83.9%)	0(0.0%)	56(100%)	
Total	15(15.0%)	84(84.0%)	1(1.0%)	100(100%)	df = 2

Table 18.
Gender differences in recognition when a strange person (pretending a relative) asks to open door (N = 100)

Gender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Frequency (%)
					χ^2
Male	8(16.7%)	40(83.3%)	0(0.0%)	48(100%)	1.099
Female	7(13.5%)	44(84.6%)	1(1.9%)	52(100%)	
Total	15(15.0%)	84(84.0%)	1(1.0%)	100(100%)	df = 2

Table 19.

Age differences in recognition when a strange person tries to pick the child up at a kindergarten (saying that "I will give you a ride because your mom sick") (N = 100)

Age	Frequency (%)				χ^2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4 years old	7(15.9%)	37(84.1%)	0(0.0%)	44(100%)	2.573
5 years old	7(12.5%)	46(82.1%)	3(5.4%)	56(100%)	
Total	14(14.0%)	83(83.0%)	1(1.0%)	100(100%)	

Table 20.

Gender differences in recognition when a strange person tries to pick the child up at a kindergarten (saying that "I will give you a ride because your mom sick") (N = 100)

Gender	Frequency (%)				χ^2
	Accepted Response	Rejected Response	Others	Total	
Male	8(16.7%)	37(77.1%)	3(6.3%)	48(100%)	4.108
Female	6(11.5%)	46(88.5%)	0(0.0%)	52(100%)	
Total	14(14.0%)	83(83.0%)	1(1.0%)	100(100%)	

사람이면 열어준다고 대답하였다. 연령이 높은 유아는 연령이 어린 유아보다 그리고 남아가 여아보다 혼자 집에 있을 때 친척이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줄 거라고 대답하였으나 연령별 성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성별에 따른 결과는 Table 17, Table 18과 같다.

9.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낯선 사람이 엄마가 아프아서 대신 데리러 왔다고 할 때 유아의 인식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모르는 사람(친척)이 엄마가 아프아서 대신 데리러 왔다고 하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83%의 유아는 안 따라가고 엄마를 기다린다고 대답하였고, 14%의 유아는 따라간다고 대답하였다. 3%의 유아는 혼자 집으로 갈 거라고 대답하였다. 연령이 어린 유아는 연령이 높은 유아보다 그리고 남아가 여아보다 모르는 사람이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와서 엄마가 아프아서 대신 데리러 왔다고 하면 따라가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연령별 성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성별에 따른 결과는 Table 19, Table 20과 같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유아들이 낯선 사람의 범죄 유인행동에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낯선 사람의 호의적인 친절과 도움요청에 대부분의 유아들은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가족과 관련하여 범죄를 유도했을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경선의 연구에서 ‘호의’, ‘도움요청’을 이용한 유인행동에 대해 아동의 이해능력이 ‘명성’, 위급상황’을 이용한 유인행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Lee, 2002). 이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2003년 ‘어린이 안전 원년의 해’로 정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 놓았으며, 유아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안전교육을 좀 더 실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과 관련해서는 유아는 부모와 깊은 애착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족을 사칭하여 범죄를 유도할 때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2010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 1,005명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사칭 및 위장으로 유인한 경우가 35.1%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유아들이 좋아하는 사탕, 아이스크림, 장난감 등으로 범죄를 유인했을 때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린 만 4세 유아들은 만 5세 유아들보다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예방 교육을 해도 어릴수록 자기중심성이 강하여 눈앞에 보이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유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부 연구에서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는 금품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13.2%로 두 번째로 높은 유인방법으로 쓰여 졌다는 결과와 일치한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따라서 앞으로도 범죄유인행동에 유아의 자기중심적 인지 양식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셋째, 성범죄 유인 행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만 5세 유아들은 대부분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만 4세 유아의 경우는 유혹에 넘어가거나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그대로 있겠다는 대답을 많이 하였다. 이는 유아들의 성폭력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Statistics Korea(2010)를 뒷받

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유아들은 아직도 성범죄 행동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에게 낯선 사람이 유아의 몸을 만지려 할 때 “안돼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가르치고 있으나 각기 다른 인지적 수준에 있는 유아에게는 종종 행동을 취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누구는 만져도 되고 누구는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유아가 이해하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Briggs, 199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2008). 또한 통상적으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성범죄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나(Elliott, Brown, & Kilcoyne, 1995; Finkelhor, Hotaling, & Sedlak, 1990; Kim, 2009), 본 연구에서는 남아들의 경우 성범죄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여아들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들에 대한 계속되는 성범죄 사건으로 여아를 둔 가정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반면 남아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아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유아들이 범죄 유인행동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의 경우 성인의 칭찬을 추구하고, 성인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숨겨진 타인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유아교육과정이나 보육과정에서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유아들은 낯선 사람의 도움을 정상적인 도움과 범죄를 목적으로 도움과를 구별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선의의 도움요청과 범죄 목적의 도움요청에 대한 분명하고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연간계획을 세워 유아범죄예방교육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 없이 이야기 나누기나 상황그림 제시 등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예방교육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아동의 성범죄는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초등학교를 돌며 성범죄 예방교육을 위한 인형극을 공연하는 경찰관들이 있다(Chosunilbo, 2010, October 23).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하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은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형식적인 교육이 되기 쉽다. 유아에게 다양한 범죄유인 상황에서 올바른 상황인식과 아울러 구체적 대처요령을 알려주는 유아범죄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서는 실제상황에 대비한 체험학습관을 마련하고, 다양한 유아범죄 예방 프로그램과 교사연수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인디언들의 속담처럼 우리 어린이들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하며 실질적 범죄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낯선 사람의 범죄유인 행동에 대해 말로 설명하여 유아들이 충분히 상황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특정지역의 유아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셋째, 만 3세 유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실험 도구를 이용하여 연령별 비교를 충분히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이 낯선 사람의 다양한 범죄유인 행동에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떠한 반응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범죄 유인 행동 중 유아들에게 가장 취약한 범죄 유인 상황과 연령과 성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 점을 토대로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범죄 상황 그리고 연령과 성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References

- Boudreaux, M. C., & Lord, W. D. (2000). Child abduction: An overview of current and historical perspectives. *Child Maltreatment, 5*, 63-71.
- Briggs, F. (1995). *Developing personal safety skill in children with disabilities*. London: Jessica Kingsley.
- Cho, B-I. (2008). General strategies for child crime (abduction, kid-napping, sexual related things). *Survey Research, 26*(5), 33-44.
- Choi, I-S., & Choi, Y-S. (1996). *Research on kid-napping crime*.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Choi, K-E. (2003). *Developing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concerning kid-napp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K-S. (2002).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Kyomunsa.
- Chosunilbo (2010, October 23). I picked up a toy while I was considering child sexual abuse. p. A29.
- Chung, H-O. (2008). Research on child sexual violence

- cri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J-S. (2000). *Research on child testimony*.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Colak, D. M. (2004). *Adjustment and expressing positive emotions during emerging adulthood: Comparing females with and without child sexual abuse histories*. Columbia University, Columbia.
- Doh, H-S., Lee, S-R., & Seung, S-M. (2009). Harmful environments. *Journal of Child Studies*, 30(6), 125-137.
- Elliott, M., Brown, E. K., & Kilcoyne, J. (1995)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What offenders tell us. *Child Abuse and Neglect*, 19, 579-594.
- Finkelhor, D., Hotling, G., & Sedlak, A. J. (1990). *Missing, abducted, runaway, and thrown away children in Americ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Justice.
- Friesen, M. D., Woodward, L. J., Horwood, L. J., & Fergusson, D. M. (2009). Childhood exposure to sexual abuse and partnership outcomes at age 30. *Psychological Medicine*, 40, 679-688.
- Geffner (1992).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in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1), 1-13.
- Gill, T. (2009). *Mothering among women with history of child sexual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any, New York.
- Hyun, J-H. (2005).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Seoul: Changjisa.
- Kim, T-K. (2009). Current status of child crime and roles of police officers. *Investigation*, 27(5), 42-49.
-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1995). *Sharing place*. 17.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0). *Sexual Violence and Its Countermeasures in Korea*.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uminilbo (2011, February 13). Approaching to 90% of not having same kind of crimes and high accident rate of child sexual crime during daytime.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4636024&code=41121111>에서 인출함.
- Kwak, E-B. (2000). A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effects of safety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G., & Lee, J-Y. (1999). Understanding children at risk.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7, 181-201.
- Lee, K-S. (2002). Children's understanding and ability to deal with stranger's l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S., & Lee, Y-L. (2009). *Principle of psychological health*. Seoul: Changjis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2008). Textbook for producing specialists in sexual violence prevention.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0, June 22). Implementing safe guard for risky children for sexual violence crime.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tPage=59&key_type=&key=&search_start_date=2010-06-22&search_end_date=&class_id=0&idx=435941에서 인출함.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September 27). 2010 Analyzing current status of sexual crime for adolescents.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에서 인출함.
-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09). *Proposals for prevention of child sexual crime*. Report for Policy Making, 1.
- Ryu, K-H. (2009). Current status and situation for child abuse. *Investigation*, 29(5). 12-21.
- Snyder, D. E. (2005). *Child sexual abus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nd caregiver symptomatology*.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 Statistics Korea (2010). *Social situation of Korea*. Seoul: Statistics Korea.
- Wyatt, G. E., & Newcomb, M. (1990). Internal and external mediators of women's sexual abuse in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6), 758-767.
- Yeun, S-H. (2008). Sending our children to school with safe concern. *Urban Problem*, 43(475), 38-50.

접 수 일 : 2011년 10월 3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0월 6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1월 23일